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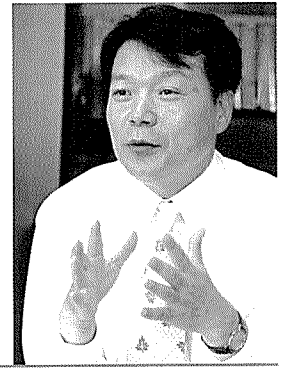
## “정보화의 나침반 역할을 할 터”

현재 전국적으로 9개 지부 및 7개 위원회, 2500여 개의 회원사를 갖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는 국내외 교류활동 및 회원 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정보와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해왔다. 또한 그동안 발행되어온 협회지를 'The Users'로 전환, 컴퓨터 사용자들을 위한 IT 전문정보지를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한복동 회장을 만나 앞으로 펼쳐나갈 사업방향 및 차별화된 전략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취재 / 전동근 편집장 사진·정리 / 김선주 차장

##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 회장

# 한복동



- 사단법인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이하 협회)가 1980년 한국IBM 중소형컴퓨터시스템 사용자모임(SISA)으로 출발, 올해로 24년째를 맞이하여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가 앞으로 새롭게 펼쳐나갈 사업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복동 회장 : 말씀하신 대로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는 1980년 몇몇 뜻있는 IBM 순수 사용자 모임으로 출발하여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맞는 등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또한 90년대 초까지 IBM 사용자 중심으로 협회를 이끌어 왔는데, IT 환경이 예전에는 IBM 등 대형메이커 사용자 위주로 구성되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많은 사용자들이 하나의 메이커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전산실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회의 성격이나 방향도 IBM 사용자들의 모임에서 더욱 폭넓게 확대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전산실장이나 CIO로 바뀌면서 점차 단순한 친목도모에서 벗어나 회사 경영 및 마케팅 분야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협회의 조직구성 및 회원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회원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복동 회장 : 현재 협회의 조직은 회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회와 고문, 감사를 두고 있으며 크게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중앙조직은 7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비상임위원회, 그리고 자체 사무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조직은 9개의 지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외 정보관련 단체와의 협력활동 전개 및 협회 내부규정 개정·제정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각종 세미나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위원회, 협회 소식지 발간 등 대외홍보를 맡고 있는 홍보출판위원회, 사용자 공동 프로젝트 수행 및 정보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하는 기술위원회, 신규 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개발위원회, 그리고 회원사 및 후원사, 지부활동 등을 지원·관리하는 지부지원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숭실대학교와 동명정보대학교, 청주과학대학교가 산학협동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부산·경남 지부를 비롯하여 대구·경북 지부, 광주·전남북 지부, 대전·충남 지부, 인천지부, 안산지부, 울산지부, 제주지부와 여러 회원사가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해온 업무 가운데 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펼쳐왔던 사업은 무엇입니까.

한복동 회장 : 그동안 협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는데, 그 가운데 특히 회원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정보지원 사업을 비롯하여 불편사항 신고센터 및 구인구직센터, 알뜰시장 운영 등의 회원사 권



의 보호 사업을 중점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또한 iSeries, Software 엔지니어 과정 교육 등 교육사업은 물론, 협회 뉴스레터와 협회지를 발행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정보관리자 월례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보기술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그 외에도 해외사용자협회와의 정보교류를 비롯하여 적용업무편람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정보교환 및 회원사·후원사들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내용을 후원사와 회원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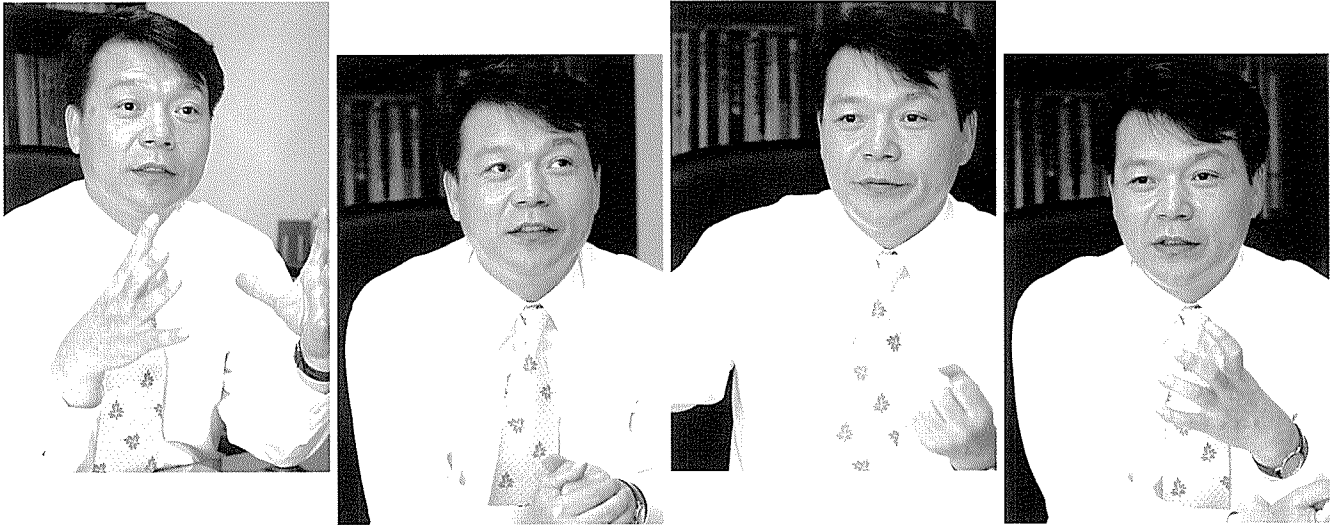
- 협회가 명실공히 우리나라 IT 관련 단체들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인 만큼, 협회가 IT 사용자들의 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중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체들 또는 지금까지 펼쳐왔던 사업들과 차별화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까.

한복동 회장 :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회 회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지부 활성화를 가장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회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기술의 학습기회 확대 및 대외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회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세미나 개최 및 기술지원 등 각 지역의 지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부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연 협력관계 확대 및 교육사업, 위탁사업 등 신규사업 개발을 비롯하여 대외홍보 지원은 물론, 후원사 제품판매 및 영업활동 지원, 회원사와의 협력정보 제공 등 후원사에 대한 지원 활동 등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들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분야별 회원사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회원사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그 요구사항에 맞춰 공급자의 동향 또는 정부의 IT 관련 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는 이를 위하여 어떤 방법을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까.

한복동 회장 : 협회를 통해 회원사와 후원사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사의 경우 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및 교육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교환 및 광고, 구인구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구인구직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업체와 인재 간의 최적의 상태를 연결시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기술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회원사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 협조하고 있으며, 회원사의 특정제품을 저가로 공동구매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사의 경우 회원사에 대한 혜택을 비롯하여 탐방 및 광고를 통한 회사 홍보 및 정보교환, 세미나 부스 참가, 그리고 후원사가 세미나를 개최할 때 홍보 및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업종별 컴퓨터 사용자들과 연대 및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이나 업종과 관계없이 폭넓은 회원사 및 후원사를 포



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단체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 국제교류 및 정부와 산학연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부처 또는 기관 및 업체들과의 협력체제와 유대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복동 회장 : 협회는 국내 중소형 컴퓨터 사용자 상호 간의 정보교류 및 기술교류를 통한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순수 사용자 단체입니다. 따라서 중소형 컴퓨터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사용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협회는 숭실대학교, 동명정보대학교, 청주과학대학교 등 3개 대학과 산학연 협력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대내외 정보단체와의 협력은 물론, 언론기관과의 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협회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협회 설립 24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협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사업 및 보안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복동 회장 : 앞으로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를 매개체로 하여 회원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그동안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온 협회지를 전문기관과의 협력사업으로 전환, 계간지로 발행되어온 「Interaction」을 「The Users」로 제호를 변경하는 한편, 격월간지 또는 월간지로 발행하여 참신하고 알찬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IBM 사용자 모임에서 더욱 폭넓게 확대하여 제공자들에게

사용자들의 의견 및 요구를 제안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순수 컴퓨터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나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IT 환경 및 변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앞장 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술 소개뿐만 아니라 앞선 회사들의 노하우와 성공 및 실패담 등 사례 발표 위주의 실질적인 정보들을 통해 규모있는 회사를 회원사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활발한 국외 교류를 통해 외국의 정보 및 사례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 및 세미나를 활성화하여 단계적·전문적으로 협회의 위상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끝으로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지면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한복동 회장 :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는 중소형 컴퓨터 사용자들이 서로 간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한 이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여 '94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명실상부한 사용자 단체로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회원 여러분의 수많은 탐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가 밑거름이 되었으며, 여러 후원사의 격려와 경제적 지원 또한 큰 도움이 되었기에 회원 및 후원사 모두가 동반하여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컴퓨터사용자협회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 단체로서 정보인이 서로 만나 정보와 기술을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회원사의 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정보화의 나침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